고려 건국 1100주년

해인사 대장경·희랑대사상 서울 '나들이'

국립중앙박물관 11월 9~10일 이운행사



고려건국 1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대고려' 특별전에 이운·전시되는 건칠희랑대사좌상과 해인사 고려대장경 경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고려' 특별전 사전행사 일환
대장경 경판 4점 국박 첫 전시
왕건·스승 희랑대사 만남 '눈길'
"고려, 한국인 DNA임을 알기를"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해인사 고려대장경 경판과 건칠희랑대사상이 서울로 이운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합천 해인사, 연천 숭의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해인사 고려대장경 경판(국보 제32호)과 건칠희랑대사좌상(보물 제999호) 이운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2월 4일부터 개최하는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처음 전시되는 해인사 고려대장경 경판과 건칠희랑대사좌상 이운을 위해 진행된다.

11월 9일 오전 10시 해인사에서 봉행되는 고불식은 대고려전에 전시되는 성보문화재들의 이운을 알리는 행사이다. 고불의식은 법보전 앞에서 열리며, 고불문 낭독에 이어 주지 향적 스님이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경판 전달을 한다.

이날 전달되는 경판은 특별전에 전시되는 4점으로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하기 전 중국과 한국의 왕들의 연표를 정리했던 '역대왕조연표'와 현존 최고(最古) 목판인 '수창판', '화엄경판', '예수시왕생심경판'이다.

또한 함께 이운되는 건칠희랑대사좌상도 주목할 만하다. 희랑대사는 태조 왕건의 스승으로 화엄학의 대가였다. 희랑대사좌상은 930년에 입적한 스님을 기리기 위해 만든 일종의 초상 곧 진영(眞影)으로, 한국에 전해오는 유일한 목조 진영이자 가장 이른 시기의 목조 불교 조각이기도 하다.

해인사의 대장경 경판과 희랑대사좌상이 사찰을 떠나 서울로 이운돼 전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히 경판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11월 10일 오전 10시에는 고려 태조와 왕들의 제사를 지낸 사당인 연천 숭의전에서 문화행사가 열린다. 해인사에서 이운된 희랑대사좌상과 태조 왕건의 진영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행사는 전통의장대와 고려공신 16명이 희랑대사를 호위해 숭의전에 도착하는 이운행렬과 스승 희랑대사와 제자 태조 왕건의 1천년 만의 만남을 축하하는 고려가무악과 서예 퍼포먼스 등으로 꾸며진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1월 10일 오후 4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장경 문화행사'이다. 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는 대장경과 희랑대사의 이운행렬을 비롯해 신달자 시인의 민족 화합 헌시 낭독, 영접 축하공연, 탑돌이, 길놀이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박물관 거울못과 주변에서는 소원지 쓰기와 가족 소원 등 띄우기 행사들도 함께 진행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고려 건국 1000주년은 일제강점기였던 1918년이었기 때문에 이번 1100주년 행사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대고려전'은 올해 열렸던 고려 건국 관련 전시, 문화행사의 피날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고, 불교를 통해 많은 국난을 극복했다. 고려가 한국인의 정신적 DNA의 뿌리임을 전시를 통해 보여주려 한다"면서 "또한 한반도 중심에 첫 수도를 내렸던 고려의 기상으로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라며, 특별전이 이런 교류의 모멘텀이 됐으면 한다. 이 같은 염원으로 이운행사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50년 이내에 이 같은 전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려 불교 문화에 대한 전시도 이뤄지는 만큼 조계종 문화부에 협조를 구해 많은 사찰 신도들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화합 이끈 복지 '20년'

개관 20주년 맞은 옥수종합·강북장애인 복지관



10월 25일 열린 '옥수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 모습(왼쪽)과 강북장애인복지관 시니어리더대학서 윷놀이하는 활동사진(오른쪽).

불교계 사회복지 영역이 점차 확장되는 가운데, 불교계 복지관 두 곳이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수탁한 초창기 복지관으로 지역사회 화합에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두 복지관은 앞으로 '지역지향성'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을공동체로 계층 화합 추구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기현)은 재단이 1997년 위탁, 이듬해 성동구 옥수동에 개관했다. 복지관은 운영지원 사찰인 미타사 정수암(주지 상덕)과 함께 옥수 일대 지역민과 20년간 함께 걸어왔다.

개관 당시 달동네였던 옥수동은 이후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중산층 거주지역이 대거 유입됐다. 이에 따라 복지사업의 방향은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와 모든 계층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두고 전개됐다.

복지관은 경제소득과 복지욕구가 상이한 지역민들 사이서 가교 역할을 하며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살피는 마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해마다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복지관은 10월 25일 옥수역 광장 및 미타사 앞마당서 개관20주년 기념식을 열고, 26일까지 양일간 '옥수바자회'를 진행해 다시 한 번 계층화합의 장을 열었다.

옥수복지관은 하루 평균 6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우수한 양적 성과를 이뤄냈다. 향후 복지관은 20주년을 기점으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시기로 보고 있다.

권기현 관장은 "원주민은 이주민을 잘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새로 터전을 잡은 사람들은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환경마련 주력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은 재단이 1998년 위탁 운영한 불교계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으로, 현재 화계사(주지 수암)를 지원사찰로 두고 있다. 강북복지관은 20년 동안 강북구 어린이청소년 및 성인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의료재활·사회참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복지관이 위치한 번2, 3동 일대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서울시 내 장애인 및 고령 복지대상자 밀집도가 최고 수준인 지역이다. 복지관은 이용자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계를 선도해왔다.

복지관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중이다. 그 중심에는 '시니어리더대학'이 있다. 주 이용자인 장애어르신 회원들은 회장 및 운영진을 선출해 이용자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복지관은 성인장애인의 주도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 아파트지만 서로 교류하지 않은 장애·비장애 주민들의 모인인 '스몰스파크' 등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복지관은 10월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서 전국 장애인복지 종사자 200명과 개관20주년 세미나를 열고, 사례를 공유하며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조석영 관장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 제반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한반도평화 위해 정교분리 각별 주의"

조계종 종평위, 10월 19일 특별미사 생중계 관련 입장문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바티칸서 열린 미사에 참석한 사안이 일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 가운데, 조계종 종평위는 공적 영역서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는 10월 19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특별 미사가 몇몇의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전한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과도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당혹감 또한 존재한다"고 밝혔다.

종평위는 한반도 평화와 종교 간 평화를 위해 "공적영역에서 종교로 인한 갈등, 편향, 차별이라는 갈등의 씨앗이 잉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지율 스님 단식 '6조원 손해' 보도 허위"

지율 스님, 조선일보 상대 대법원 승소판결

'천성산 도롱뇽 단식'을 전개한 지율 스님으로 인해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의 기사는 허위였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9일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율 스님이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교 시민사회단체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불교환경연대는 판결 직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6절 (305×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카렌다 DONGJIN SAMBO BUDDHISM CALENDAR 삼보불교 불교카렌다 불교한수막 불교인쇄물 기타불교용품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